

"글쓰기는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열한 살의 안네 프랑크는 책장으로 가린 비밀의 방에 숨어 일기를 썼습니다. 글쓰기는 그를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나아가기 시작해야 비로소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성차별과 인종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의 여성 시인 에이드리언 리치의 말입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동은 생각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그 생각은 말과 글로 완성됩니다. 글을 쓰는 일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말과 글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입니다. 책을 읽고 글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차별과 편견에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습관처럼 사용하던 언어의 의미에 예민해지면서 구체적인 행동도 달라집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와 표현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구조 아래서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것으로 별다른 반성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창문 없는 방처럼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갑갑하고 부당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글이 평등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군가를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단단히 감추어져 있어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시인 에이드리언은 이렇게 감추어진 언어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의 존재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편견에서 자유로운 ‘공통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통언어를 향한 꿈>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이 시집에서 그는 상처와 힘은 같은 근원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그를 이겨내기 위해 글을 쓴다면 그 사람은 현재와 미래를 바꿀 힘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리치는 ‘어느 시인에게’라는 시에서 자신이 왜 글을 쓰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 없는 다른 여성을 위해, 외로움과 먼지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쓴다.”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은 차별을 뛰어넘어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통언어를 찾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입니다. 오늘의 아동과 청소년이 또래집단과 무엇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내일의 장면들이 달라집니다. 이번 공모전은 가까이 있는 차별을 감각하고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같은 체온을 가진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연대하도록 돕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부터 매스미디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경험한 폭력적이거나 불평등한 순간에 대한 목격담과 비판, 가족 안에서 겪었던 부당한 일을 글로 쓰면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를 더 뚜렷하게 들여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학교와 가정, 지역 공동체에서 건강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좋은 세계에 대한 구체적 제안은 이미 미래를 향해 걷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여러분의 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한 예리한 진단이나 상상력이 깃든 유쾌한 풍자도 환영합니다. 이야기와 글의 힘은 어떤 힘겨운 경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욱 평등하게 손잡고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대를 북돋우는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표현이나 가부장적인 서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이야기부터 최근의 드라마까지 우리 곁의 수많은 모험 이야기에서 여전히 주인공은 남성이며 여성 인물은 그가 모험에 성공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처럼 묘사됩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성별에 집중되는 반면 이야기 속의 지적인 협상이나 탁월한 전략가는 남성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나 친구들 사이의 수다 같은 일상 언어 속에서도 성차별적인 비하 표현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성별이 어떤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편견에서 비롯된 다양한 금기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믿음직한 좋은 친구가 있으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방법을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이라는 하나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동료로 만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금기와 차별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용감한 언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충실한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학생들과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누고 다함께 성인지 감수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요즘 들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폭력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웃과 동료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공동체의 연대와 희망의 언어를 진취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탐색하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실험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한 것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은 낯설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자라납니다. 양성평등 작품 공모전은 이러한 여러분 모두의 독립성을 믿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개성을 감추지 않고 경계의 마음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더욱 더 따뜻하게 환대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쓰기가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선임이사/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참고) 창작을 위한 서사와 인물에 던지는 질문

작품 창작의 아이디어 발견 및 이야기를 점검하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긍정 |

질문	범주
인물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기발견과 성장을 추구하나요?	주체성
인물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나요?	
인물의 개성이 성별 고정관념으로 결정되지는 않나요?	
생명의 탄생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고 있나요?	몸의 이해
몸의 성장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나요?	일의 세계
일의 세계인물이 성별 차이 없이 다양한 지위에서 동등한 역할을 하나요?	
여성 인물의 노동을 본인, 가족, 동료, 사회가 존중하나요?	

| 다양성 |

질문	범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보여주나요?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의사 결정권이 존중되나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나요?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발견과 성장을 편견없이 보여주나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가 보조적인 인물로만 등장하지는 않나요?	
다양한 계층과 문화권의 여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표정, 자세, 차림새 등의 그림, 묘사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표현되지는 않나요?	표현
의인화된(비인간) 등장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의인화되지는 않나요?	
배경 등 인물과 상황의 묘사가 성별 편견 없이 다양한가요?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나요?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혐오가 드러나지는 않나요?	

| 공존 |

질문	범주
인물에 관한 평가와 보상의 기준이 성별 차이 없이 적용되나요?	사회적 인정
여성 인물의 사회적 기여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나요?	
사회적 약자에게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알려주고 있나요?	안전
등장인물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회적 약자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나요?	
등장인물이 성별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나요?	연대
등장인물이 사회적 약자에 관한 편견에 함께 저항하나요?	